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문학과 일본의 바둑문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바둑 관련 에세이를 중심으로—

김 청 균**

(e-mail : kgsiga321@hanmail.net)

< 목 차 >

- | | |
|-------------|------------|
| 1. 서론 | 4. 바둑의 현대화 |
| 2. 바둑발전의 동력 | 5. 결론 |
| 3. 조화로서의 바둑 | |

키워드 : 川端康成(Yasunari Kawabata), 囲碁文化(Culture of Go), 吳清源(Chingwian U), 調和(Harmony), 新布石(New Strategic Move)

1. 서론

2016년에 열렸던, 한국의 이세돌 기사와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국은 가히 세간의 이목을 모은 문화적 사건이었다. 그 이래로 바둑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점점 더해가고 있는 바, 이러한 관심과 인기는 바둑이 오랜 전통을 갖는 동아시아의 게임이라는 사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바둑이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놀이임에도 불구하고, 바둑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은 그다지 존재하지 않으며, 소위 메이저급 작가의 경우에 바둑과 관련한 작품을 남긴 이는 참으로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았을 때, 일본근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196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이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1971)

** 연세대학교, 강사, 일본근현대문학

기도 한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는 매우 이채로운 존재이다. 가와바타는 바둑을 소재로 한 소설과 에세이, 그리고 바둑 관전기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가와바타의 문학 세계를 일본의 바둑 문화와의 관련 속에서 분석하여 그 특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일본의 신감각과 작가의 한 사람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이즈의 무희(伊豆の踊子)』¹⁾, 『설국(雪国)』²⁾, 『산소리(山の音)』³⁾ 등 걸작을 발표하였으며, 그 작품에는 일본의 서정성이 깊이 투영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작품 경향과 관련하여 매우 이색적이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가와바타가 열렬한 바둑애호가로서 바둑 관전 기사를 지내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체험을 바탕으로 가와바타는 소설 『명인(名人)』⁴⁾을 비롯하여 바둑 관전기와 『우칭위안 기담(吳淸源棋談)』⁵⁾ 등 바둑을 소재로 한 에세이를 남겼다. 가와바타의 바둑 관련 작품은 가와바타 작품의 기저에 흐르는 일본의 서정성 뿐 아니라, 일본의 바둑문화를 읽어낼 수 있는 훌륭한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가와바타의 바둑 관련 작품은 일본의 바둑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바둑문화와 문학을 아우르는 학제적, 통섭적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일본의 바둑문화와 문학, 양쪽 모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는 가와바타의 바둑 관련 작품은 연구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바둑 관련 작품은, 가와바타의 소설 『명인』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연구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바둑문화와 관련한 가와바타의 작품 세계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가

1) 단편소설 『이즈의 무희(伊豆の踊子)』는 1926년 1월부터 2월까지 『분게이지다이(文芸時代)』에 발표되었고, 1927년 3월 긴세이도(金星堂)에서 간행한 단편집 『이즈의 무희(伊豆の踊子)』에 수록되었다.

2) 장편소설 『설국(雪国)』은 1935년 1월부터 1947년 10월까지 『분게이춘추(文芸春秋)』, 『가이조(改造)』 등에 단속적으로 발표되었고, 1937년 6월에 소겐샤(創元社)에서 이를 개정 증보한 『설국(雪国)』이 간행되었다. 이후 다시 이를 개작한 『설국(雪国)』이 1948년 12월 소겐샤(創元社)에서 간행됨으로써 완결되었다.

3) 장편소설 『산소리(山の音)』는 1949년 9월부터 1954년 4월까지 『가이조분게이(改造文芸)』 등에 단속적으로 발표되었고, 1954년 4월에 지쿠마쇼보(筑摩書房)에서 간행되었다.

4) 장편소설 『명인(名人)』은 1951년 8월에서 1954년 5월까지 『신초(新潮)』 등에 단속적으로 발표되었고, 1954년 7월 분게이춘추신사(文芸春秋新社)에서 간행한 『우칭위안 기담·명인(吳淸源棋談·名人)』에 수록되었다.

5) 『우칭위안 기담(吳淸源棋談)』의 간행 사항에 대하여는 본 논문의 「2. 바둑발전의 동력」의 본문 중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와바타의 바둑 관련 에세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에서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바둑 관련 에세이를 중심으로 일본의 바둑문화와의 관련을 시야에 넣어 분석함으로써 가와바타의 문학 세계의 특징을 파악하고 일본의 바둑문화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칭위안 기담』, 『신포석 청춘(新布石青春)』⁶⁾등,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바둑 관련 에세이를 대상으로 이들 에세이를 일본의 바둑문화와의 관련을 시야에 넣어 고찰하기로 한다.

가와바타의 바둑 관련 에세이는 기본적으로 전근대(前近代) 시기 일본의 바둑 전통에 대한 긍정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와바타는 일본의 바둑을 상대화하여 평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가와바타는 중국 등 타국의 바둑 전개에 대하여도 관심을 기울인다. 그리하여 가와바타는 궁극적으로는 바둑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탐구하고자 하였고, 동시에 바둑은 본질적으로 어떤 게임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가와바타의 바둑 관련 에세이를 통하여 가와바타가 바둑 발전의 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는지, 또 가와바타가 존경하고 있던 기사 우칭위안이 바둑의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의 바둑은 근현대기에 접어들어 이 시기의 일본이 사회 각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크나큰 변모를 보여주었다. 신포석(新布石) 등 바둑에 관한 이론의 현대화가 이루어졌고, 전문기사제가 도입되고 각종 기전이 창설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출중한 기사들의 출현으로 일본 바둑은 크게 발전하게 된다.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일본 바둑의 현대화가 이루어지던 이 시기에 바둑 관전기를 쓰기도 하는 등, 그 변화를 몸소 가까이에서 체험한 작가이다. 일본 바둑의 현대화라는 격변의 시기에 가와바타는 그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도 시야에 넣어 가와바타의 바둑 관련 에세이를 분석하기로 한다.

2. 바둑발전의 동력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기본적으로는 소설가이지만, 슈사이 명인(秀哉名人)의

6) 『新布石青春』은 『木谷実選集』第二卷(日本棋院, 1968年8月)의 「月報」에 처음 수록되었다.

은퇴바둑 관전기⁷⁾, 슈사이 명인과 우칭위안 간의 대국 관전기⁸⁾의 경우에서처럼 바둑의 관전기를 쓴 적도 있고 가장 좋아하는 취미의 하나가 바둑이기도 하였던 인물이다. 실제 작품에 있어서도 슈사이 명인의 은퇴바둑을 소재로 한 바둑 소설 『명인』을 남기고 있는데, 이 작품은 그의 대표작의 하나로 간주된다. 그와 동시에 가와바타는 바둑과 관련된 에세이를 몇 편 남기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우칭위안 기담』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우칭위안 기담』을 중심으로 가와바타의 바둑 관련 에세이에 대하여 분석하되, 본고의 제4장 「바둑의 현대화」에서는 ‘바둑의 현대화’와 관련된, 가와바타의 생각을 보여주는 에세이 『신포석청춘(新布石青春)』도 분석의 대상에 넣어 고찰하기로 한다.

『우칭위안 기담』은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의 석간(夕刊) 지면에 1953년 8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41회에 걸쳐 연재된 에세이이다. 이 에세이는 그 이듬해인 1954년 7월에 문예춘추신사(文芸春秋新社)에서 간행한 『우칭위안 기담·명인(吳淸源棋談·名人)』에 수록되었다.

가와바타는 1953년에 우칭위안을 인터뷰하여 『우칭위안 기담』을 썼다. 중국 출신으로 1928년 도일하여 일본에서 바둑기사로 활동하였던 우칭위안은 이때 나이 39세로 일본에 온지 25년째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우칭위안의 바둑 기량이 절정에 올라 바둑계의 1인자로서 군림하던 시기⁹⁾로 그런 만큼 이 에세이의 저변에는 우칭위안에 대한 존경심이 자리잡고 있다.¹⁰⁾

7) 슈사이 명인은 에도시대(江戸時代)의 바둑명문가 중의 하나였던 혼인보(本因坊) 가의 마지막 세습 혼인보였던 인물로 기타니 미노루(木谷実)를 상대로 한 그의 은퇴바둑은 1938년 6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두어졌다.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이 바둑의 관전기를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과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에 연재하였다. 이 관전기의 해설은 우칭위안이 담당하였다.

8) 슈사이 명인과 우칭위안 간의 대국 관전기는 1922년 2월 8일과 9일자 『국민신문(國民新聞)』에 게재되었다.

9) 우칭위안은 도일 이후 그 바둑 실력으로 바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1933년에는 기타니 미노루와 함께 ‘신포석(新布石)’을 발표하여 각광을 받았다. 1940-50년대에 우칭위안은 일본 바둑계의 1인자로 인정받으며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10) 가와바타가 우칭위안을 바둑 기사로서 그 실력을 매우 존중하고 있었음은, 바둑을 소재로 한 가와바타의 소설 『명인(名人)』에도 드러난다. 『명인』에는 슈사이 명인의 은퇴바둑을 중심으로 기사들의 대국 시의 미묘한 심리적 갈등의 일단이 드러나고 있다. 『명인』에서 슈사이 명인은 오타케(大竹) 7단(이는 기타니 미노루 <木谷実>가 모델임)이 둔 후 121의 수를 예도에 어긋난 수라고 오해한다. 그런데, 가와바타는 오타케 7단이 후 121 수를 둔 의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칭위안의 “후이 121을 두어도, 백은 122로 받지 않고 8의1로 산다. 그러면 팻감으로 쓰기 어렵게 된다.”(川端康成(1980) 『名人』, 『川端康成全集』第11卷, 新潮社, p.557) 라는 견해를 소개한다. 이는 바둑

우칭위안에 대한 이러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한 이 에세이는 다소 의외의 출발을 보여준다. 1953년 8월 21일에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의 석간(夕刊) 지면에 게재된 『우칭위안 기담』의 제2회분 「전통(伝統)」의 시작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이번에 우 씨(吳氏)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을 바로잡게 된 것이 하나 있다. 이전부터의 나의 의심이 풀린 것이기도 했다. 그것은 중국의 바둑 실력에 대해서이다.¹¹⁾

가와바타는 우칭위안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중국의 바둑 실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와바타는 중국의 바둑 실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을까? 이 점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것은 다음의 인용 대목이다.

진정한 바둑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의 바둑의 예(芸)는 지금이든 300년 전이든 일본에 비하여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는다. 바둑이 드 높아지고 깊이 있게 된 것은 일본인에 의해서였다. 옛날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많은 문물이 중국에서 훌륭하게 발달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바둑은 일본에서만 훌륭하게 발달했다. 다만 그것은 에도막부(江戸幕府)가 보호를 해 준 뒤로 근세의 일이다.¹²⁾

가와바타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바둑 전통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제대로 된 바둑 문화가 꽃 핀 것은 일본에서이고, 그것도 에도시대에 이르러서였다고 가와바타는 생각한다. 그러한 바둑의 발전은 에도막부의 보호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본바둑의 발전에 대한 이러한 진단은 정확한 진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일본만 놓고 보았을 때 에도시대에 막부의 보호 하에 일본의 바둑이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나, 그러한 발전이 오직 일본에서만 존재했다는 가와바타의 인식에는 오류가 있다. 바로 이 점을 깨우쳐 준 이가 우칭위안이다. 다음을 보기로 하자.

에 관하여 우칭위안의 이야기는 굳게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신뢰감, 나아가 우칭위안에 대한 존중의 감정에 기반한 것으로 여겨진다.

11) 川端康成(1980) 『吳清源棋談』, 『川端康成全集』 第25卷, 新潮社, p.243.

(이하 본 논문에서 일본어 문헌으로부터의 인용 시, 한국어 역은 본 연구자에 의한다.)

12) 川端康成(1980) 『吳清源棋談』, p.244.

중국의 바둑은 건륭(乾隆) 시절에 가장 융성하였다고 우씨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다. 그 건륭제의 원년은 일본의 겐분(元文) 원년(1736년), 도쿠가와(徳川)도 8대 쇼군 요시무네(吉宗) 시절이다. 그리고 건륭 시절은 60년 계속되었다. 일본의 기사로 말하면 기성(棋聖) 혼인보(本因坊) 도사쿠(道策)는 건륭으로부터 34,5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겐로쿠(元祿) 15년에 별세한다. 중국의 강희(康熙) 41년에 해당한다. 또한 명인 조와(丈和)는 건륭 시절의 마지막에 어린 아이였다.¹³⁾

가와바타는 우칭위안을 통하여 중국의 청(淸) 왕조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건륭 시절이 또한 중국 바둑이 가장 융성한 시기였음을 알게 된다. 이 건륭 시절은 시기적으로는 일본의 8대 쇼군 요시무네의 시기와 겹치며 일본 바둑의 명인으로 이름 높은 도사쿠의 이후 시기, 그리고 조와 명인이 활약하기 이전의 시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건륭 시절의 중국 바둑이 얼마나 강했는지는 건륭 시절의 고수가 일본의 몇 단 정도에 상당하는지에 대한 가와바타의 질문에 우칭위안이 “대단합니다. 명인급이겠지요.”¹⁴⁾ 라고 대답하는 데서 여지없이 드러난다. 이로부터 건륭 시절 중국 바둑의 실력이 에도시대의 일본 바둑에 필적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어떻게 건륭 시절의 중국 바둑이 에도시대의 일본 바둑에 필적할 정도로 강할 수 있었는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도 우칭위안은 “건륭 시절은 문화가 가장 번영한 시절로…”¹⁵⁾, “바둑도 귀족, 부호가 보호 장려했습니다. 건륭 시절은 천하가 태평하고 중국의 국력이 충실하여 유복하기도 했으니까 바둑도 융성했습니다.”¹⁶⁾ 라고 말하고 있다.

요컨대 국력이 충실하고 천하가 태평하여 문화가 번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바둑이 융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 바둑이 에도시대에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이 오랜 전란이 수습되고 평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닌 문화(町人文化)가 번영하고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막부가 지속적으로 바둑을 보호 육성하였던 데 있었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

“갓가지 학예의 재능이 나라와 시대에 의하는 운명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¹⁷⁾ 라고 가와바타가 적고 있는 데서 드러나듯이 바둑 또한 문화를 형성

13) 川端康成(1980) 『吳清源棋談』, p.245.

14) 川端康成(1980) 『吳清源棋談』, p.246.

15) 川端康成(1980) 『吳清源棋談』, p.248.

16) 川端康成(1980) 『吳清源棋談』, p.248.

하는 다른 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나라의 국력, 그리고 시대 분위기에 따라 융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함을 가와바타는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와바타는 우칭위안을 통하여 중국 바둑에도 융성한 시기가 있었음을 알게 됨으로써 일본 바둑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바둑 발전의 동력이 각 나라의 국력과 시대 분위기라는 점을 깨닫고, 일본 바둑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이 가와바타가 우칭위안과의 인터뷰에서 얻은 성과였음을 알 수 있다.

3. 조화로서의 바둑

당대 일본의 바둑 1인자였던 기사 우칭위안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씌어진 『우칭위안 기담』은 그 주된 인터뷰의 소재가 바둑이니만큼 당연히 바둑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논점으로 부각된다. 바둑의 본질에 관하여 우칭위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를 가장 여실히 드러내 보이는 대목은 바로 다음의 인용 대목일 것으로 생각된다.

“바둑은 조화의 모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둑은 다툼이나 승부라기보다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돌 하나 돌 하나가 상응하여 마지막에 한판의 바둑이 조화로운 것으로 성립하는 것입니다.”¹⁷⁾

“내 생각으로는 바둑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돌을 포개 가는 것입니다만, 그 하나하나의 돌에는 작용이랄까, 힘이랄까 그런 것이 어디에 돌이 놓이든 있는 거지요. 그 하나 하나의 돌의 힘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 완전히 종합적인 힘을 갖는 것입니다. 가령 세 개의 돌이 있다고 해도 그 세 개의 돌을 합친 힘은 15가 되기도 하는가 하면, 10이 되기도 합니다. 몇이라도 됩니다. 즉, 세 개의 돌의 종합적인 조화 여하에 따라서 그 힘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나는 자신의 돌 하나하나가 최고의 작용과 조화를 가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상대도 물론 그에 열심일 터입니다. 그리하면 거기에 또한 상대의 돌과 자신의 돌, 즉 백돌과 흑돌의 조화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

17) 川端康成(1980) 『吳清源棋談』, p.248.

18) 川端康成(1980) 『吳清源棋談』, p.265.

우, 백과 흑 두 사람의 기량에 현격한 차가 있어서는 조화는 깨져버리겠지요. 조화에는 두 사람의 상응하는 힘이 필요하겠지요.”¹⁹⁾

주지하다시피 바둑은 흑을 켜 사람과 백을 켜 사람이 한 수 씩 교대로 착수하여 최종적으로는 집의 많고 적음으로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다. 바둑 대국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두 대국자 간에 승패가 갈리게 된다. 바둑이 승부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엄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바둑은 단순히 승부라는 점으로만 귀착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상기 인용에 보이는, 우칭위안의 ‘바둑은 조화’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대국자가 놓아가는 돌 하나하나의 작용의 대소 여부에 따라 그 결과로 승패는 자연스럽게 갈리게 될 것이다. 대국 상대보다 돌의 조화를 이룬 이는 이기게 될 것이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 이는 지게 될 것이다. 돌의 조화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바둑 대국에 있어서는 자신의 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지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신의 돌의 조화를 꾀하는 데서 더 나아가 바둑에는 보다 큰 차원의 조화가 존재할 수 있다고 우칭위안은 생각한다. 비슷한 기량을 가진 두 사람이 자신의 바둑에서 조화를 추구할 경우, 그들은 각각 자신의 돌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 데서 나아가 상대의 돌과의 조화마저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우칭위안은 “바둑은 조화이니까 무리해선 안 됩니다. (중략) 바둑의 승부는 보통의 승부와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인위적인 것이 적어서 거의 자연의 현상이라고 해야 하는 바, 자연의 현상을 단지 승부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 아닐까요?”²⁰⁾ 라고까지 말하는데, 이를 통해 ‘바둑은 조화’라는 우칭위안의 생각이 일종의 바둑예찬론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바둑이 승부를 겨루기는 하되, 바둑은 이기고 지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다른 오락과는 달리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의 이법(理法)에 순응하여야 한다는 이치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둑의 본질이 조화에 있고, 그러므로 자연의 이법에 순응하여야 한다는 우칭위안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바둑의 기원(起源)에 대한 독특한 견해로 이어진다. 우칭위안은 “바둑의 시작은 승부 겨루기나 놀이가 아니고 천문(天文)이나 역학을 연구하는 도구였다.”²¹⁾ 라는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19) 川端康成(1980) 『吳清源棋談』, pp.265-266.

20) 川端康成(1980) 『吳清源棋談』, p.266.

바둑의 기원(起源)이 천문이나 역학을 연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이 견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바둑 연구가인 마스카와 고이치(益川宏一)가 중국에 있어서나, 전후 일본에 있어서나 바둑의 기원은 충분히 고찰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²²⁾, 미즈구치 후지오(水口藤雄)가 “바둑의 기원에 관한 정보는 불확실한 면이 많다.”²³⁾ 고 말하는 바와 같이 바둑의 기원은 아직도 분명히 밝혀지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바둑의 기원이 천문이나 역학에 있다고 가정하면, 자연의 이법을 따른다는 점에서 바둑의 본질이 조화에 있다고 보는 견해는 더욱 설득력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칭위안이 가지고 있는 바둑의 본질과 기원에 관한 생각은 하나의 논리 구조를 가지는 자연스런 사유의 소산임을 파악할 수 있다.

4. 바둑의 현대화

『우칭위안 기담』에서 우칭위안은 ‘바둑은 조화’임을 강하게 피력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는 바둑이 승부라는 사실을 망각하지는 않는다. 우칭위안은 바둑이 승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바둑이 승부를 겨루는 좋은 게임으로 자리 잡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을 보기로 한다.

“제 이상(理想)으로서서는 바둑은 하루 안에 끝내도록 하고 싶습니다.”

“하루 안에라고 해도 몇 시간 정도...”

“6시간 정도에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한 사람의 제한 시간이 6시간, 두 사람이면 12시간이 됩니다. (중략) 다만 바라는 것은 바둑이 될 수 있는 한 공정한 경기가 되도록 할 것, 외국에도 널리 발전되어 갈 것, 그리고 기사의 건강을 중시할 것...”

이 세 가지가 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우 씨의 주된 이유인 듯하다.²⁴⁾

우칭위안은 기사들의 대국에서 대국자 한 사람당 6시간의 제한 시간을 들 것을 역설한다. 대국의 공정성, 외국으로의 보급, 기사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21) 川端康成(1980) 『吳清源棋談』, p.301.

22) 益川宏一(1987) 『ものと人間の文化史59 碁』, 法政大学出版局, pp.25-26.

23) 水口藤雄(2001) 『囲碁の文化誌—起源伝説からヒカルの碁まで—』, 日本棋院, p.14.

24) 川端康成(1980) 『吳清源棋談』, p.270.

이러한 제한 시간의 설정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그가 들고 있는 제한 시간 설정의 이유는 모두 합리성을 가지는 것들이다. 대국이 하루 내에 끝나지 않으면 중단된 대국이 다시 재개되기까지 시간을 기사가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 없어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바둑이 대국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임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면 외국에 대한 바둑 보급은 지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고도의 정신노동이자 육체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바둑을 생업으로 하는 기사가 장시간의 대국을 계속한다면 기사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제한 시간 6시간 설정이라는 우칭위안의 제안은 무엇보다도 기사들의 바둑을 좋은 내용의 승부로 이끌어내기 위한 합리적 제안이라 보인다. 우칭위안은 바둑을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지 않고 바둑이 승부이기도 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 바탕 위에서 합리적 제안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칭위안의 제안은 대국자의 시간 사용 등에 있어서 당시 아직 통용되고 있던 전근대적인 요소를 뛰어넘어 바둑의 현대화를 추구한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실제 현대 바둑은 우칭위안의, 제한 시간 6시간이라는 제안을 뛰어넘어 현재는 제한 시간이 한 사람 당 2시간 내지는 3시간인 기전이 일반적인 흐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당 제한 시간이 1시간 이내의 속기 바둑 또한 흔히 두어지게 되었다.

우칭위안의, 제한 시간에 대한 제안은 분명 바둑의 현대화에 기여하는 제안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바둑의 현대화라는 측면과 관련하여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우칭위안의 공헌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칭위안과 기타니 미노루(木谷実)²⁵⁾가 공동으로 창안한 신포석(新布石)이라는 새로운 포석법의 개발이었다.

이들 두 사람의 공헌에 대하여 가와바타는 에세이 『신포석 청춘(新布石青春)』에서 “기타니 미노루, 우칭위안의 신포석시대는 두 젊은 천재의 청춘 시대였던 데에 그치지 않고 실로 또한 현대 바둑의 청춘 시대였다.(중략) 신포석시대의 기타니와 우만큼 명확히 시대를 들끓게 하고 시대의 새로운 획을 그은 신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된다.”²⁶⁾ 라고 한다. 우칭위안과 기타니 미노루가 공동으로 창안한 신포석이 바둑의 포석에 있어 근본적 변화를 불러 일

25) 기타니 미노루(木谷実)는 우칭위안과 함께 신포석을 창안하였을 뿐 아니라, 우칭위안과 1933년부터 34년에 걸쳐 제1차 10번 승부, 1939년부터 1941년에 걸쳐 제2차 10번 승부를 겨루는 등, 일본의 정상급 기사로 활동하였다.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을 소재로 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명인』의 등장인물 오타케(大竹) 7단의 모델이기도 하다.

26) 川端康成(1980) 『新布石青春』, 『川端康成全集』第25卷, 新潮社, p.345.

으며 바둑 현대화에 기여한 것을 두고 가와바타는 ‘시대의 새로운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현대 바둑의 청춘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까지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와바타가 현대 바둑의 발전에 새로운 기점을 이루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는 신포석은 바둑 연구자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신포석의 출현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바둑 연구자인 미즈구치 후지오(水口藤雄)는 신포석이 제시되어 바둑 애호가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933년 여름 기타니 미노루가 『포석과 정석의 통합 (布石と定石の統合)』이라는 저서를 발표하기 위하여 신슈(信州)의 지고쿠타니온천(地獄谷温泉)에 보양을 겸하여 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칭위안이 참가하여 새로운 포석의 방식을 연구하였고, 도쿄에 돌아오고 나서는 당시의 일본기원(日本棋院) 편집장 야스나가 하지메(安永一)의 집필에 의하여 『신포석법 (新布石法)』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니와 우는 그해 가을의 정식 시합에서 ‘신포석법’을 시도하여 두 사람이 우승을 겨룰 정도로 이겨졌습니다. 인기와 실력을 갖춘 두 사람이 『신포석법 (新布石法)』을 발표하고 또한 실천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고 동서(同書)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²⁷⁾

위의 인용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기타니 미노루와 우칭위안 두사람이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낸 신포석은 바둑 실전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그 이론의 우수성이 입증됨으로써 더욱 각광을 받게 된다. 이러한 신포석의 의의에 대하여 미즈구치 후지오는 “근대의 바둑 전법의 일대 전기가 된”²⁸⁾ 것이자 “바둑계의 신기원을 이룩한 것”²⁹⁾으로 본다. 또한 한국의 바둑 연구자인 문용직은 바둑의 역사에서 패러다임의 혁명으로 생각되는 것은 두 번으로 그 첫째는 17세기 말 일본의 명인 도사쿠(道策)에 의해 발견된 구조주의적 사고이고 둘째는 20세기 초 우칭위안과 기타니 미노루의 중앙의 발견이라고 하여³⁰⁾ 신포석이 바둑에

27) 水口藤雄(2001) 『囲碁の文化誌一起源伝説からヒカルの碁まで一』, p.184.

28) 水口藤雄(2001) 『囲碁の文化誌一起源伝説からヒカルの碁まで一』, p.184.

29) 水口藤雄(2001) 『囲碁の文化誌一起源伝説からヒカルの碁まで一』, p.184.

30) 문용직(2006) 『바둑의 발견』, 도서출판 부키, pp.42-43.

초래한 변화가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변화였다고 본다. 그리고 기쿠치 다쓰야(菊地達也)는 “신포석은 종래의 포석에 입체감과 스피드를 붙여 넣은 참신함이 있고, 이것은 에도시대부터 애써서 쌓아올린 ‘귀와 변의 바둑’에서 ‘가운데와 세력’을 향한 탈피를 담고 있었다.”³¹⁾ 고 하여 신포석의 출현으로 일본 바둑이 에도시대의 바둑에서 벗어나 현대 바둑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와 같이 우칭위안과 기타니 미노루의 신포석은 가히 현대 바둑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소목과 외목 위주로 이루어지던 종래의 포석에 대하여 화점과 삼삼을 이용한 신포석의 발상은 스피드와 중앙을 중시하는, 바둑의 새로운 반면 운영 전략을 가능케 했다. 한마디로 신포석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현대 바둑 전략을 창출한 것이었다.

신포석을 창안한 기타니와 우칭위안에 대한 가와바타의 평가는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며 바둑 애호가라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가와바타의 독특한 점은 청년기의 기타니와 우칭위안에 의해 만들어진 신포석이 새로운 바둑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라고 두 기사의 젊음과 새로운 바둑의 도래를 ‘청춘’이라는 이미지로 연결시켜 바라보았다는 점이다.

5. 결론

본고에서는 『우칭위안 기담』을 비롯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바둑 관련 에세이를 중심으로 가와바타의 문학과 일본의 바둑문화와의 관련을 고찰하였다.

가와바타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바둑 전통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제대로 된 바둑문화가 꽃핀 것은 일본에서이고, 그것도 에도시대에 이르러서였다고 가와바타는 생각한다. 그러나 우칭위안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바둑 또한 문화를 형성하는 다른 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나라의 국력, 그리고 시대 분위기에 따라 융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함을 가와바타는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와바타는 우칭위안을 통하여 중국 바둑에도 융성한 시기가 있었음을 알게 됨으로써 일본 바둑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당대 일본의 바둑 1인자였던 기사 우칭위안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쓰인

31) 菊地達也(2000) 『木谷実とその時代』, 棋園圖書, p.22.

『우칭위안 기담』은 그 주된 인터뷰의 소재가 바둑이니만큼 당연히 바둑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논점으로 부각된다. 이에 대한 우칭위안의 답변은 ‘바둑은 조화’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일종의 바둑예찬론으로 이어진다. 우칭위안에 의하면 바둑이 승부를 겨루기는 하되, 바둑은 이기고 지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다른 오락과는 달리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의 이법(理法)에 순응하여야 한다는 이치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바둑은 근현대기에 접어들어 이 시기 일본이 사회 각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크나큰 변모를 보여주었다. 신포석 등 바둑에 관한 이론의 현대화가 이루어졌고, 전문기사제가 도입되고 각종 기전이 창설되었다. 이처럼 바둑이 현대화되어 가는 한 단면을 가와바타의 바둑 에세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우칭위안 기담』을 통하여 대국 시의 제한 시간을 6시간으로 하여야 한다는 바둑 현대화에 부합되는 우칭위안의 주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신포석 청춘』을 통하여 신포석이 창안된 시기는 곧 현대 바둑의 청춘기라고 가와바타가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문용직(2006) 『바둑의 발견』, 도서출판 부키, pp.42-43.
川端康成(1980) 『名人』, 『川端康成全集』第11卷、新潮社、p.557
川端康成(1980) 『吳清源棋談』, 『川端康成全集』第25卷、新潮社、pp.243-248、pp.265-270、p.301
川端康成(1980) 『新布石青春』, 『川端康成全集』第25卷、新潮社、p.345.
菊地達也(2000) 『木谷実とその時代』, 棋園図書、p.22.
水口藤雄(2001) 『囲碁の文化誌一起源伝説からヒカルの碁まで一』, 日本棋院、p.14、p.184.
益川宏一(1987) 『ものと人間の文化史59 碁』, 法政大学出版局、pp.25-26.

논문 투고 일자 : 2018. 10. 14.
논문 심사 일자 : 2018. 11. 07.
게재 확정 일자 : 2018. 11. 09.

 < 要旨 >

 川端康成の文学と日本の囲碁文化
 — 川端康成の囲碁関連エッセイを中心に —

金青均

本稿では、『呉清源棋談』をはじめとした川端康成の囲碁に関するエッセイを中心に川端康成の文学にあらわれた日本の囲碁文化について考察した。

川端康成は基本的に日本の囲碁の伝統に自負を抱いている。囲碁文化が花開いたのは日本で、それは江戸時代に入ってからだと川端は考える。しかし川端は、呉清源とのインタビューを通して、碁もまた文化を形成する他の分野と同じく、国の国力と時代雰囲気によって、隆盛したり衰退したりすることを認識するようになったと思われる。

『呉清源棋談』は、その主な話題が碁だったので、碁というものは何であるかが選けて通れない論点になる。これについての呉清源の考えは、「碁は調和」ということだった。呉清源によれば、碁は勝負を争うものではあるが、勝ちか負けかに主眼をおく他の娯楽とは異なって、自然の理法に順応し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原理を具現するものだということなのである。

日本の囲碁界は近現代期に入り、大きな変化を成し遂げる。このような囲碁現代化の様子が川端の囲碁エッセイにあらわれる。『呉清源棋談』には対局の制限時間を6時間にすべきだという主張がみられる。また、『新布石青春』には新布石が出現した時期は、現代囲碁の青春期であったという川端の言及がある。

 Yasunari Kawabata's Literature and the Culture of Go in Japan
 - Focusing on His Essay about Go -

Kim, Chung-Gyoon

This study examines, the literature of Yasunari Kawabata and his relations with the Go culture in Japan based on his Go-related essays such as "The Chingwian U's Stories of Go."

Yasunari Kawabata is proud of the tradition of Go in Japan. However, based on an interview with Chingwian U, he seems to have recognized that the culture of Go flourishes or declines according to the power of each country and the atmosphere of the times, such as in other fields that form the culture.

The question "What is Go?" is emphasized as an unavoidable question, as the subject matter of the interview was Go. Chingwian U answered, 'Go is harmony'. According to Chingwian U, Go is a competition, but it implements the logic of adapting oneself to the order of nature.

Yasunari Kawabata's essays on Go depicts such an image of a modernized Go. "The Chingwian U's Stories of Go" reflects his opinion that the timeframe for a match of Go should be limited to 6 hours. Also, "Springtime of New Strategic Move" reflects his appraisal regarding the period when the new strategic move was created, which indicates the florescence of modern Go.